



미국 건강보험거래소 가입자 설문조사 결과

이아름 연구원

■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2013년 10월 설립된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됨. 건강보험거래소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지급능력에 따른 보장범위 선택 용이, 비용구조에 대한 이해도 제고, 온라인을 통한 정보 수집 증가 등으로 요약됨.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도 실손가입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채널의 비교 가능성 제고 및 가입 간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오바마 정부는 건강보험개혁법¹⁾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2013년 10월 저렴한 건강보험을 공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함.²⁾

- 기존 체계는 의료비를 저소득층을 위한 Medicaid³⁾와 65세 이상을 위한 Medicare⁴⁾로 보장하고, 그 외는 민영건강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무보험자 문제가 이슈화되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오바마케어’를 추진하였으며, 초기 목표는 무보험자를 위한 공공보험 설립이었으나, 민간부분과의 공정경쟁 문제 등의 논란으로 건강보험거래소를 설립함.⁵⁾
 -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과 50인 이하 고용주도 건강보험거래소에서 건강보험 구매가 가능하며, 이들은 거주지역, 소득수준, 연령 등에 따라 차등적인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⁶⁾
 - 또한, 오바마 정부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절감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는 물론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⁷⁾

1) 공식 명칭은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 건강보험거래소는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며, 운영방식은 주정부 기반, 연방정부 기반, 주정부·연방정부 협력 운영의 세 가지로 분류됨.
 3) 저소득층 대상의 공적 건강보험으로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133%까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4) 노인의료보험제도로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함.
 5) 차상위계층 중심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증으로 Medicaid 적용을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공공복지 증가만으로는 비용 충당이 어려워 건강보험거래소가 설립됨.
 6) Medicaid에서 제외된 연방빈곤수준 133~400%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할인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 건강보험거래소의 건강보험은 출산,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만성질환, 치과와 안과, 소아과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표준화되어 불필요한 보장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억제함.
 - 또한, 본인부담률이 4단계(10%, 20%, 30%, 40%)로 분류되며, 젊은 층의 고액 의료비 특별 보장, 어린이 전용 보장 등 몇 가지 특약만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화됨.
- 최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증가⁸⁾하고 있는 가운데, Deloitte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⁹⁾
 - 동 설문조사는 18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3,751명¹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표본을 연령, 성별, 인종, 소득,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 운영자¹¹⁾로 분류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건강보험거래소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지급능력에 따라 보장범위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용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거래소 가입자 중 70%가 본인부담금 지급이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34%가 향후 발생할 건강보험 비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거래소 가입자들 중 월 보험료와 전년대비 증가된 보험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각각 95%, 92%임.
- 이는 건강보험거래소 가입자들은 다른 가입자들에 비해 2배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상품별 본인부담금, 다음 해 본인부담금 추정치, 특약보험 등의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단체보험 가입자의 30%만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반면, 건강보험거래소 가입자는 건강보험 정보 수집 및 가입 가능 웹사이트가 다양하게 존재함에 따라 온라인 활용률이 67%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채널의 비교 가능성 제고 및 가입 간소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¹²⁾ Kiri

7) 단, Medicaid 또는 Medicare 해당자이거나 단체보험을 제공받고 있다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8) 2016년 3월 기준 1,11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에 비해 90만 명 증가한 것임.

9) Deloitte(2016), "Rising to the challenge: Meeting health insurance exchange consumers' expectations".

10) 이 중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804명임.

11) 단체보험, 건강보험거래소, Medicare, Medicaid, 기타 등으로 분류됨.

12) 금융감독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단독형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와 보험회사 온라인 채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